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지금이 기회”

일본, 배출권 시세 하락에 구매 확대 ... 우크라이나서 3000만톤 매입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해 구입찬스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교토의정서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약 30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은 처음으로 취득액이 300억엔(한화 4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교토의정서에 근거해 2008-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6%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체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어려워 1.6%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해외에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5년간 1억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최근 배출권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30% 정도를 한꺼번에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세는 세계적인 경기후퇴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6개월 전의 3분의1 수준으로 급락했다.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감해 매각 가능한 배출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10>